朝鮮日報
朝刊
本紙特刊並二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金
發行所 京城府堅志洞三二番地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社說
戰爭의 脅威에 對하야
現代不安의 一斷面

一

第二次世界大戰의 危機에 對한 各種各樣의 豫斷이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諸立場에서 東西各國의 有名無名의 學者評論家에 依하야 敍述된지 이미 二三年이 되엿다. 이 戰爭에 對한 各種의 見解는 엇더한 國家와 國家間의 外交關係가 緊張하여지고 더욱이 엇더한 事變이 惹起될 때마다 强調되나 滿洲事變을 導因으로하야 極東時局이 多端하게 되고 日本과 國際聯盟이 正面으로 對立된 때 世界戰爭論者의 注視의 焦點은 極東으로 集中되엿섯다. 이번에 獨逸이 國際聯盟을 脫退하게 되자 달은한 焦點은 歐洲로 集中되엿다. 勿論 焦點의 內包는 複雜하고 時時刻刻으로 變化된다. 目下 極東戰爭의 危機의 正方向은 日中關係를 中心으로한 日本對國聯關係에서 日蘇關係로 轉換되고 이에 따라 日米戰爭論者는 休業되는것과 가티 戰爭危機의 標的은 歷史의 進行에 制約되야 不絕히 그 스케일과 그 內容을 變改하면서 現代人의 頭腦를 極度로 刺戟하고 잇다. 그러나 實際에 잇서서는 戰爭에 이르지아니치 못할것과 가치 進行되는 現代國際政治의 破綻 그것의 程度보담도 戰爭論者의 騷音이 一層人心의 不安을 더하게하는것도 事實이다.

二

그러면 戰爭은 不可避의 것인가? 또한 戰爭은 各國民의 繁榮을 爲하야 有效한 手段인가? 後者가 아님은 이미 大戰의 쓰린 經驗이 산 敎訓이 되고잇는 것임으로 말할것도 업는 일이다. 그러면 非繁榮을 爲하야 戰爭의 悲劇을 스스로 取할 國家는 업슬것이 當然할것이다. 그러나 事實은 이러함에 不拘하고 反對로 最近의 各國이 戰爭의 脅威를 避하려고 努力하면서도 一種의 準戰爭狀態를 生活하고 準備하는것은 否認할수업는 歷歷한 事實이다. 勿論 貨幣價値의 差는 잇슬터이지마는 歐洲大戰前보담도 倍半이나 膨大한 各國의 軍事費總額— 一九一四年에는 八十餘億萬弗이든것이 一九三二年에는 百二十餘億萬弗이다—은 그 證左가 아니고 무엇이랴? 더욱이 이일은 各國이 다 한가지 未曾有의 失業者를 擁하고 一般經濟恐慌으로 七顚八倒의 財政苦難에 잇스면서도 演行되는것은 戰爭論者의 有力한 『戰爭危機』의 論據가 됨에 有效한 奉仕를 하고잇는것이다. 이러한 各國의 狀態가 形式은 달으나마 『非常時』의 일홈으로써 表現되고, 그 對策이 外國에 잇서서는 所謂 『에머젠시, 메주어』—非常時對策—의 일홈으로써 나타나는것이다. 勿論 이 非常時란 實質上으로는 漫性的인 景氣가 政治的으로 反映된것이다. 이러한 一般的 狀態를 歸納한것이 『戰爭의 危機』이니, 論理的으로는 戰爭은 世界非常時의 對策이다.

三

그럼으로 戰爭이란 現在의 모든 狀態와 無關係한, 또는 突發的인 事件은 아니다. 이런 點에서 獨逸의 有名한 戰略家 크라우쎄빗츠將軍이 『戰爭이란 달은 手段에 依한 政治經濟의 繼續이오, 一定한 國家와 國家間의 特別한 方法에 依한 交涉이다。』고 한것은 含蓄잇는 말이라할것이다。現下의 各國事態는 何者를 勿論하고, 이 恐慌의 經濟等應急對策을 實行하고잇지마는 生産力과 利益을 中心으로한 生産關係에 桎梏되야 自然制限되고 이에 따라 勞働力은 死藏되야 失業者는 街頭에 汎濫, 달하야 購買力은 減少, 달하야 生産은 窒塞하는 一騎의 衞機의 矛盾에 依하야 自然巨大한 市場이 要求되고잇는것은 各國共通의 宿命이 되고잇는것이다. 그럼으로 日下數年間 景氣循環論者의 豪語한 沈默裡에서 各國이 滿足할 國際經濟가 確立되지 못하고 國家經濟의 香은 嫉妬에 드러안커 그反映으로써 國民意識이 强烈히 高調되는限에서 各國의 緊張한 對立關係가 一定한 直接原因을 맛나면 그것이 크거나 적거나간에 戰爭으로 發展할것은 自明한 일이다. 날하야 戰爭의 危機란 結局 現代不安의 가장 鮮明한 一斷面이다.

日米와 無電契約을 國民政府가 破棄
十八日午後公式으로 聲明發表
外務省嚴重抗議方針

【聯合南京十八日發】 國民政府는 十八日午後 一九一八年二月二十一日付 三井物産會社와 北京政府交通部의 無電契約及 一九二一年一月八日附 北京政府交通部와 米國『페데랄』無電會社의 無電借款契約을 一律破棄한다는 公式聲明을 發하고 此를 政府機關中央通信社를 식혀 公表케하엿다. 右는 兩無電協定은 有名한 雙橋無電臺를 中心으로 日米中 三國間에 無電紛議의 中心이 되여잇는것으로 當時의 紛議는 此等關係國뿐이아니라 全世界의 注意를 集中하고잇다. 그리고 其後無電은 急速의 進步를 遂하얏고 또北京政府는 國民革命의 結果 南京政府가 되엿슴으로 三國의 爭議는 未解決된채로 放置되야 今日에 이른것이다.

【聯合東京電話】 南京政府는 今回突然 北平의 三井雙橋無電及 米國『페데랄』無電會社의 對外放送契約을 一方的으로 廢棄하는 通告를 하엿슴에 對하야 外務省에는 아즉 公電이 업스나 萬若事實이라고하면 次와如한 理由에 依하야 嚴重抗議를 發하기로되엿다.

一、元來中國에 在한 對外放送局이란것은 三井과 當時의 中國政府와의 間의 契約이 一九一八年에 成立하고 三井은 이 契約에 따러 無電臺를 建設하기로되여잇는데 그後中國은 米國과 一九二一年에 가튼 契約을 締結하얏슴으로 上海에 建設計劃中이엇든 無電臺는 이를 建造치안코 그後 日米中三國間에 紛爭이 繼續되든것이다.

一、그런데 今回 突然一方的으로 廢棄하려고한것은 當然이를 容認할수업고 右廢棄通告는 無効이다.

一、中國側에서 右廢棄를 決行하려고하면 北京政府와 三井間에 成立한 借款五百萬圓의 賠償返還을 請求하려는것이다.

急迫을 告하는 第二大戰의 危機 (一)
咸尙勳

戰爭必至論

滿洲事變이 이러나든 再昨年 九月十八日, 全世界는 第二世界大戰이 이러난다 떠들엇다. 今春 獨逸宣傳相 꾀벨쓰氏가 伊太利首相을 訪問햇슬때도 世界大戰이 다시 이러날것을 念慮하얏다. 그러나 滿洲事變이 이러난지 이미 滿二周年, 꾀벨쓰가 伊首相을 訪問한지 이미 一年이 되어가것만 아즉 어데서나 戰爭이 이러나지 안엇다. 그러나 戰爭의 危機는 더욱 急迫하야젓다. 北滿鐵道를 中心한 日蘇關係는 蘇聯側의 所謂 『秘密報告』의 發表로서 米國으로하야금 今後四週間內에 戰爭을 開치안흐면 今冬은 干戈를 交치안흐리라는고 豫測하리만큼 되엇고, 獨逸을 中心한 歐洲의 平和는, 獨逸의 軍縮及聯盟脫退로써 佛國의 달라디에內閣으로하야금 急轉直下 佛國의 運命에 關케하고, 英陸軍政務官 쿠퍼氏로하여금 『平和를 破壞하는 國家權力은 어떤것이든지 沮止함이 必要하다』고 言明하리만큼 破壞의 危機에 直面하엿다. 이러고도 果然 世界는 다시 戰爭의 危機를 回避할수잇슬가? 나는 이 斷然한 戰爭必至論의 아우성 속에서 冷靜히 戰爭이 果然 올것이냐 안올것이냐, 온다면 어떠한 理由로써 올것이냐, 그리고 온다면 어느곳으로부터 오며 그 陣營은 어써될것이냐를 歷史的, 政治經濟的, 軍事的見地에서 考察하랴 한다.

歷史上의 戰爭

歷史라하면 人類創生으로부터 今日의 人生生活까지를 全部包含할수도 잇고, 人文歷史라할수도 잇스나 五千年을 歷史라할수도 잇스나 便宜上 이것을 現在로부터 約百年前의 時代를 歷史로 잡기로한다.

最近百年間의 歷史를 보면 戰爭이 數十, 數百回다. 그러나 그中에 國民과 國民間의 戰爭, 植民地의 母國에 對한 獨立戰爭等 大規模의 戰爭은 約十數回다. 이것을 歐羅巴에서보면 一八二二年의 希臘獨立戰爭을 비롯하야

一八二九 露土戰爭(塞、希、羅 三國獨立)
一八三〇 白耳義獨立戰爭
一八三九 土埃戰爭
一八五三 크리미야戰爭
一八六六 普墺戰爭
一八七〇 普佛戰爭
一八七七 露土戰爭
一八八三 英埃合倂
一八九九 米西戰爭
一八九九 보아戰爭
一九一〇 와쇼다事件
一九一四 世界戰爭
一九二五 希土戰爭

의 順序로 戰爭이 잇고, 極東을 隔하야 보라

一八九四 日淸戰爭
一九〇四 日露戰爭
一九一六 日獨戰爭

의 順序로 約十年마다 戰爭이 잇섯다. 이것으로 보면 歷史엔 마치 무슨 法則이나 잇는듯이 十年마다 戰爭이 오는듯하다.

그러나 戰爭의 到來는 마치 測度計의 바늘가티 一定하게 回轉함도 아니오, 運命論의 말하는 輪廻的으로 오는것도 아니다. 戰爭은 諸般條件이 成熟하야 어오나니 그 條件이란것은 例를 들지, 過去에는 君主或은 帝王의 支配群이 自國內에 生産物의 不足을 招來할때 이 資源을 外國에 求하기위하야 또는 自國內에 漸次 充滿한 人口飽和狀態를 調節하랴 할때 戰死者의 發生으로써 調節하랴 할때 自國民에게 對外的 感情을 煽動하야 戰爭에 訴하얏고 現代에는 生産及 交易手段을 一身中에 獨占하고 그生産品의 販路及 生産原料를 求하는 大資本家가 國民을 煽動하야 海外發展에 熱中케하라하므로 戰爭이 起한다.

一八二九年의 露土戰爭, 一八三九年의 埃及을 둘러싼 列國의 戰爭, 一八五三—六年의 크리미야戰爭, 一八六六年의 普墺戰爭, 一八七〇年의 普佛戰爭, 一八七七年의 露土戰爭은 前者에 屬하고 一八九九年의 米西戰爭, 一八九九—一九〇二年의 보아戰爭, 一九一四—一八年의 世界大戰은 後者에 屬하는것이다. 그러나 그成熟期間이 大槪十年을 要하얏슴으로 規定的으로 온것가터보이나, 그러라고하면 世界大戰이 끗난지 이미 十五年 十五年市場爭奪慾이 資本主義 諸國支配群의 頭腦로부터 解消되지안은 今日 이 戰爭의 到來性은 充分히 잇다할것이다.

◇……=國際癲狂院=저마큼神의選民으로 自處하는 過大忘想症들린各國民族 (海外漫畵)

五相會議歸着은 大局的一致程度?
全般的問題에 意見一致는 困難
決定國策은 閣議에 上程豫定

【聯合東京電話】 一九三六年의 重大危機를 目標로 內外의 國策을 樹立하려하는 五相會議는 이미 四回에 亘하야 開하엿든바 結論에 到達치못하고 二十日午後二時부터 第五次五相會議를 開하기로되엿는데 벌서 各閣僚로부터 意見도 述盡되야 今後는 如何히 落着되어갈가가 問題로되여잇다. 그리고 荒木陸相은 十八日 軍事參議官會議散會後 聲明한바와 가티 全陸軍一致의 支持를 背景으로 內外의 國策樹立을 强硬히 主張할것으로 보는데, 一九三五年乃至三六年의 國際的危機를 脫하는데는 엇지하던 强力의 軍備를 必要함은 勿論이나 一方外交工作에 依하야 最惡의 境遇를 避하는것도 當然事로 外交工作과 國防充實과 民力涵養과는 三位一體로 樹立할것이라는 意見이 有力하야 二十日 五相會議에서도 모든問題에 亘하야 意見一致를 보기는 困難하다할지라도 原則的問題임으로 國防의 國策樹立即外交工作에 依하야 最惡의 境遇를 避하야 權威잇게할것은 當然하나 外交工作을 權威잇게하는데는 國防의 充實에 기다리지안으면 안될것은 勿論임으로 一九三六年의 危機를 目標로 一般國策을 原則으로할方針에 伴하는 外交國防의 國策에 就하야는 어느 程度의 一致를 보면 二十一日臨時閣議를 開하고 齋藤首相으로부터 이五相會議에서 一致한國策을 報告承認을 求하기로 廟議를 決定하야 正式으로 帝國의 難局을 打開할 不動의 國策으로서 內奏의 手續을 取하야 此의 實施에 全力을 注할터이라 한다.

米人暴行事件 米大使『히』首相懇談

【聯合伯林十七日發】 駐獨米國大使도드氏는 『히틀러』首相과 會見할 要求하얏는데 『나치쓰』가 米國人에 對하야 暴行을 加한 事件及 獨逸의 軍縮會議脫退에 對하야 懇談하얏는바 會談은 자못 好調로 終了되엿고 米國大使는 『히틀러』首相의 和協的 態度에 好印象을 受하엿다. 『히틀러』首相은 米大使에 對하야 暴行事件에 對하야 誠意를 披瀝하엿다. 또首相은 平和에 對한 眞意나 戰爭回避의 熱意가 强하야 他各國과의 折衝에 依하야 어데까지 平和를 維持하기를 希望한다』고 말하얏다. 그리고 獨逸政府는 『벨사유』條約과 國際聯盟規約의 規定을 遵守할 意向을 가지고잇다고 力說하는 同時에 獨逸政府가 首相에 對하야 軍縮交涉再開를 提議한 書翰을 送附하엿다는 報道를 否認하엿다고 거듭 聲明하엿다.

內蒙自治運動에 國民政府重大視
宣撫使急派로 制度改革

【聯合上海十九日發】 南京政府는 內蒙古의 自治運動을 重大視하고 對策을 協議하든 中 十八日 政治會議에서 行政院에서 提出한 蒙藏委員會制度變更, 蒙古行政制度改革及 蒙古行政人員任用標準等을 協議하고 其辦法은 中央으로부터 有力者를 特派하야 實地調査케하기로 決定하엿다. 그리고 蒙古宣撫使 黃紹雄氏는 二十日 南昌으로 飛行하야 蔣介石氏의 指示를 바든 趙丕廉氏를 同伴하고 北中을 經由하야 蒙古로 赴하기로되엿다.

伊獨間軍縮交涉 伊太利否定

【聯合로마十七日發】 十七日 獨逸政府가 伊太利政府에 對하야 國聯以外의 機關에 依하야 軍縮會議問題를 希望한다고 通告하엿다는 報道에 對하야 伊太利官邊은 右는 全然 事實과 相違하는것이라고 否定하엿다.

米國産業復興運動 順調進捗은 難期
豫定대로의 物價引上은 失敗
大統領、物價引上에 努力

【聯合華盛頓十八日發】 目下 全米를 擧하야 其實現에 熱中하고잇는 産業復興運動에 對하야 産業當局은 過去三個年에 亘한 實績을 銳意調査中이든바 産業復興은 大體順調로운 進捗을 보이지못하고 아직 滿足한 領域에는 到達치못하엿다고 發表하엿다. 右에 對하야 『루스벨트』大統領의 意向이라고하야 傳하는바에 依하면 九月上旬의 農産物價格은 今年三月로써 終了하는 一個年間의 平均價格보다도 三割二分이 騰貴되엿는바 大統領은 더욱 復興局當局이 右價格引上에 努力할것이라고 見解를 가지고잇다. 그리고 調査한 結果判明된바에 依하면 農民이 購入하는 物資의 價格은 一般으로 上騰되여잇는 一方 工場勞働者의 收入은 三月부터 九月까지 二割五分 騰貴되여잇스나 事實은 九分騰貴된데 不過하다.

李擇一氏 渡日次出發

【電通上海十九日發】 日中諸懸案을 解決키爲하야 日本에 派遣될 李擇一은 二十六日 南京國民政府

有吉、黃交涉에 各界의 注目集中

【電通北平十九日發】 有吉公使는 去十七日 上海發 津浦線으로 北上하얏는데 此를 機會로하야 中國側의 有力分子間에는 懸案中의 諸問題中 解決可能한것을 全部解決하려는 意向이 잇서 먼저 密接한 利害關係잇는 北中에서 日中兩國의 關係를 正常關係에 回復케하고 全面的 親和狀態의 實現確立에까지 進할것이라는 意見이 有力하게 主張되고 此等의 意見이 中國側當局及 日本側方面에 熱心으로 唱導되여잇다. 그리고 中國側이 有吉公使에 如斯히 期待를 두고잇는 所以는

一、有吉公使의 交涉相對로써 黃郛氏가 交涉의 最適任者인것
三、外交部長汪精衛氏가 黃郛氏의 背後에 잇서 이를 支援하고잇는것

等이 列擧되고 如斯한 好條件이 치안코 日中關係를 急展開할것이라함에 잇다. 따라서 이러한 親日空氣의 彭湃한中에 十九日夜 留平한 有吉公使의 北上은 各方面에서 非常한 期待를 가지고잇다.

日印私的會談 澤田代表와 『산』長官會見

【電通심라十八日發】 十七日 日印政府가 交涉한 結果 雙方의 提案에 相當한 開隙이 잇서 澤田『산』兩主席代表의 私的會商에 依하야 其解決이 期待되엿섯스나 依然 十八日午前十一時 澤田全權은 松島一等書記官을 伴하고 『산』長官을 私邸에 訪問하야 同第一次私的會談을 行하엿다. 即 過日 印度의 提案으로 雙方의 主張이 明確하게 되엿스나 今後의 進行方法으로써 印度의 提案中 日本이 受諾할수업는 點이 잇슴으로 此等諸點에 對한 印度의 異意를 探하야 懇談的意見을 交換한것이다. 이와가티 私的會談의 第一日은 正午會見으로써 終了하엿다.

滿洲國官憲이 北鐵圖書館閉鎖
赤色書籍多數를 即時로 押收
時局關係로 事態重大

【電通哈爾賓十九日發】 滿洲國官憲은 蘇聯側이 北鐵沿線各都市의 圖書館을 中心으로 赤化宣傳을 하고잇슴을 探知하고 十八日午後一時 北鐵中央圖書館을 閉鎖하야 多數의 赤化書籍을 押收하얏는데 右는 滿洲國官憲의 赤化宣傳防遏의 第一步로 重大視되여잇다.

關東軍의 諒解어더 中公安隊行動開始
灤東地方土兵討伐

【電通天津十九日發】 灤東地方의 土兵을 討伐하든 中國公安隊는 停戰協定線內로 進出한데 對하야 關東軍과 圓滿한 諒解가 成立되엿슴으로 드듸여 軍事行動을 開始하기로되여 李濟春이가 引率한 公安隊는 秦皇島方面을 擔當하기爲하야 十八日夜 灤州를 出發하엿고 于學忠軍을 改編한 保安隊는 十八日午後 天津을 出發하야 昌黎로 向한바 兩部隊가 一兩日中에 東西에서 서로 呼應하야 總攻擊의 戰端을 開하기로 決定하엿다.

朝鮮九年度豫算 拓務省原案決定

【聯合東京電話】 外地特別會計明年度豫算省議 第一回審議는 十八日午前十時半 拓務省에 開會하고 永井拓相 河田次官以下 朝鮮으로부터 林財務局長 水田司計課長이 出席 協議하얏다. 第一日은 朝鮮總督府所管事項에 對하야 審議하기로하고 林財務局長으로부터 明年度豫算에 對하야 說明하얏다. 이에 對하야 永井拓相에 拓務省當局과의 間에 意見의 交換을 한 結果 特殊事項을 除하고 原案대로 承認하얏다. 그리고 特殊事項에 對하야는 朝鮮拓務省當局에서 繼續하야 協議하기로되고 第二日은 十九日은 臺灣總督府豫算의 審議에 入할터이든바 特히 朝鮮關係의 豫算은 如左하다. 그리고 第一日의 會議에서 大略決定한 朝鮮特別會計豫算은 如左하다. 省議를 一日 延期續行하기로되엇다.

總額 二億五千七百四十六萬八千圓
經常部 一億八千三百九十九萬圓
臨時部 七千三百四十七萬八千圓

歲出의 重要한 項目은 如左하다
一、棉作及羊毛奬勵、滿洲事變費、時局匡救費、治山治水事業
一、北朝鮮開拓事業
一、資源調査
一、米穀統制自治的事項(正租貯藏費)
一、港灣修築
一、療養所擴充

夕刊後의 市況

東京短期
	後引	高價	低價
東新	一九六〇	一九九〇	一九四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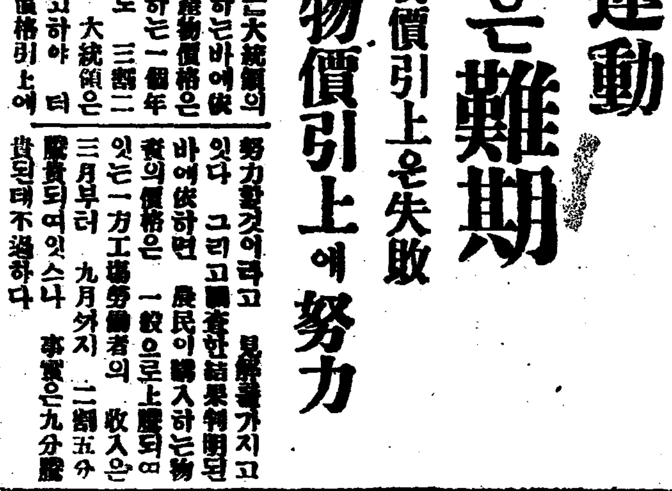
大阪短期氣配
大新	三〇四〇		四〇低
鐘新	二三六〇		一〇低
日産	一二九七〇		二〇低
東新	一九六〇		八〇低

橫濱生糸後引
當 六五〇〇 先 六九八〇

一事一言
四十萬同胞 長白山人

日本에 散在하는 朝鮮人이 四十萬이라고 한다. 大阪府內에만 十八萬을 算하리라고. 그들은 大部分이 勞働하는이인것은 말할것도 업다. 首爾와 風俗이 다른 他鄕에 와서 살아가는 그네의 苦楚는 말할것도 업슬것이다. 그런데 이 四十萬朝鮮人의 敎養은? 衛生은? 娛樂은? 子女의 敎育은 엇더한가. 日本民衆에 석기지도못하고 (經濟的, 社會的, 民族的差異로) 그러타고 自發的團體生活도 못하고—그들은 어데로 가는가. 文化的으로 向上하는 代身에 退化의 一路로 向하지나 아니하는가. 만일 그러타 하면? 아아 그러라 하면! 무슨 方法을 講究하지아니하면 아니될것이다. 四十萬在日本朝鮮人을 爲하야 經濟的으로 文化的으로 流浪하는 그들에게 經濟的安住를 주고 文化的向上을 주는 方途가 업서서는 안될것이다.

蛔虫驅除新藥
十錢 糖衣 마구닌錠
大人 一日量
十錢마구닌錠은世界的蛔蟲藥으로서有名한마구닌을主藥으로하고服用키쉽도록砂糖衣를씨워서糖衣錠으로한것임으로其効驗은主藥마구닌과同一하며著効한것은勿論下劑를먹을必要가업스며連續服用하드래도絕對安全하고中毒作用이絕無합니다



全國藥店有
KM—38
發賣元 大阪東區道修町 株式會社 藤澤友吉商店 京城支店 京城西小門町

『인프레』政策으로 廚房經濟에大異狀

日用品時勢—比昨秋— 平均一割一分高

果實四割九分、野菜二割二分 薪炭一割三分、穀類一割四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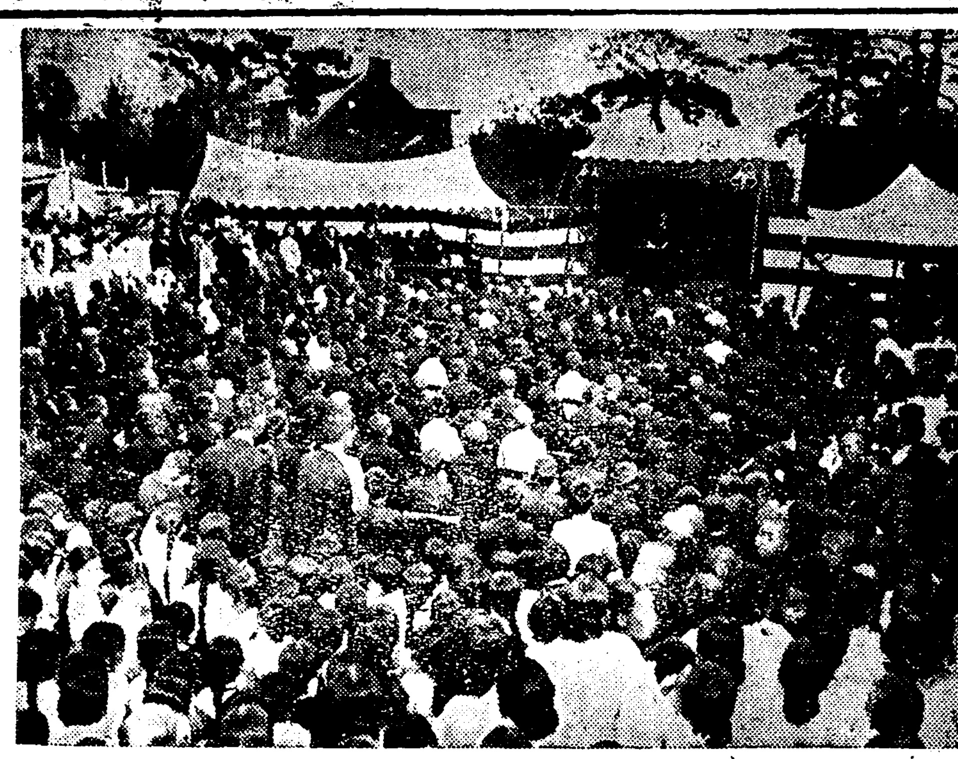
嚴冬압두고細民에脅威

경성부공설시장의일용품판매시세를 보건데작년시월과 금년시월과의 비교를 하면전반으로는 일할일분(一割一分)평균이올랏다 즉수육(獸肉)과 계란류는일할사분이올랏고술등속(酒類)은 삼분이리가올랏스며 해산물등속은 이분이올랏고 『간즈메』(罐詰)류는일할팔분이 올랏스며 야채류(野菜類)는 이할구분이올랏고 과실류는사할구분이올랏고 신탄(薪炭)류는 일할삼분이올랏다 그중에제일만히올은과물은지난번수차의폭풍으로피해가만어서 과실흉년이든싸닭이고해산물과『간즈메』와신탄그중에도숫갑이오른것은 만주국수출이만흔싸닭이며 야채류가올은것은긴장흉년을예상하고 올은것이다한가지새로운현상은곡물류(穀物類)가일할사분이나올은것이다 그것은한편에서조선쌀의일본이출을제한과이출미에서 금을벗는다는등의론이성행하야곡가가내릴듯하나 다른한편으로는새로오는십일월일일부터실시하는미곡통제법(米穀統制法)으로 인하야 쌀갑이떠러진다해도락업시 떠러지지는 안으리라는것을 예상하고그와가치올으는 모양이다 년래로불경기가심하야 농산물갑이 떠러저농촌은 비상히곤경에빠지엇는데 근년에는 소위『인푸레』경기라하야 정부당국에서는 물가를 올니랴방책을쓰고잇서 그효과도어느정도까지잇는 모양이나 일반소비계급이그대로 여전히궁핍하여잇는이때에 물가만올은다면역시문제일것이다 이때에일용품의소매시세가올라 엄동을코압에둔서울사람에게는 또한 적지아니한고통이될것이다

惡德主取締하야 小作爭議를防禦

警務局에서各道知事에게嚴命

금년은 소화오년 이후의대풍작이라하며또한 미곡통제 문제로떠돌고잇기는하나 곡가는 의연히회복되지 못하고잇다 그럼으로농가가 밧는타격은 상당히크다는데 지주중에는 곡가가나진관계로밧은 타격을 일반소작인에게떠넘기려고 여러가지 착취수단을 강구하여가지고 부당한리득을 어드려하며 또는과거에는온정주의(溫情主義)적색채가농후하든 지주도 점점권리주의(權利主義)로전환하여봄에소작인들에게 대부하엿든 농량(農糧) 기타농사자금에대하야고리를커매여한꺼번에채권을회수하려고수확물의권부를압수하는등여러가지 횡포한일이만어 소작인들은가을부터 먹을농량 조차업스리라는 사태에잇다한다 그리하야 그들악덕지주는 소작인들을더욱 곤궁한처지에 빠지게하야 소작쟁의를이르키게 할념려가잇다하야 사건에 그대책을강구하여 소작빈농의 생활을안정식히며 사회의안녕질서 를유지하기위하야 총독부 경무국에서는 각도지사의게악덕 지주취체를엄명하고 또한 각도지사는각군수와 경찰서장에게 지시하야소작쟁의 방지에 노력하라고이미발령하엿다한다



◇梅洞公普校落成式—사직동공원안에 굉대한 교사를신축하고 이전한매동공립보통학교 에서는 십구일오후한시부터 동교교정에서 성대한락성식을 거행하엿다(사진은락성식광경)

天道教青年會 臨時大會開催

선전대파견동결의

천도교 경성청년회에서는 십팔일오후일곱시반에 그 교당안에서림시대회를 열고 천도교세력

取調中의李秀峰 京城으로押來할터

韓人○○黨巨頭金○와共謀하야 玉氏暗殺事件에도參加

십이일 상해(上海)총령사관 경찰서에 붓들리어 령사관폭탄사건의수령으로 취조를밧고 잇는리수봉(李秀峰)은 상해에서 취조가 못나는대로장긔(長崎)를거처어 경성으로 호송케될모양이라는데리수봉은 상해 령사관폭탄사건에만 관련이 잇는것이아니라 옥관빈(玉觀彬)씨를 암살한사건에도 리면의 존재가되여잇는 모양이라한다 그런데리수봉의검거로 상해에잇는 조선○○운동자간에엇던암류(暗流)가잇든모양이라고당국에서는보고잇다당국의관측에의하면거간오랜동안상해를중심으로다수의인물이모이어 ○○운동을 하여오든중 여러가지 파란이중첩하여나려오다가 최근에는 한인○○당중심하고여러가지로활동을하여오는가운데강경파와온건파의두갈래가잇서강경파에서는온건파에서최근에 운동경향이 그정신이타락되여간다 고책하여오다가 근자에는 황해도신천(信川)출생의김○(金○)를중심한강경파의직접행동분자가암중 행동을취하야 옥관빈의암살도이러한리면사정이잇는것이라고전하고잇다

張斗明等公判 二十四日開廷

【淸津】 함북재건공산당사건(咸北再建共產黨事件)피고장두명(張斗明)외이십오명에대한치안 유지법위반은 구월에십사일에 예심종결되엿다함은 긔보하얏거니와 제일회공판은 오는이십사일에 청진지방법원 제일호법정에서호전(戶田)재판장주심으로 개정되리라고한다

南原秘社事件 十二名送局?

◇赤色夜學關係인듯

【南原】 남원경찰서에서는남원군남원읍과임실군지사(任實郡只沙)등군거로 사오개월전에 북십여명을 검거하고 그간엄밀한취조를 진행해오든바 지간에 오십명은 무사히나가게되고 남어지 십이명은를일간일건서류와함께 송국할모양이라는데 아즉도내용은 비밀에붓치으로 상세한진상은 알수업스나 탐문한바에의하면 남원읍을근거로 적색비밀결사(赤色秘密結社) 남원군사매 임실군지사를 중심으로한적색야학(赤色夜學)관계이라한다

아들새지나혼妻가 親家에만가서안와

男便은同居訴訟提起

가치살아주거나 그러치안으면 어떤자식이라도 내어달라고 아모리 간청하엿으나 못못내도지 안는다하야 시내 중학동(中學洞)십삼번지 백웅현(白雄鉉)은 김시두(金時斗)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하야 그의 안해로 현재 경긔도리천군장호원(利川郡長湖院)김천손(金千孫)의 집에동거하는김천옥(金千玉)(二○)을상대하야시부 일경성지방법원에 동거및실자인도청구(同居及實子引渡請求)의 소송을제기하얏다 소장에의지하면 그는십일년전에서로결혼하야살아 오든중사년전에아들을하나 나앗으나그처가 작년사삼월에무단히 어린아이를데리고 친정으로 도라가서는석가에서 하대를하느니 어쩌느니 말정을부리고 도라오지안코지난팔월에는 선부가 죽엇스니도라오라 해도오지안로 또그뒤에남편이 수차 차저가서간청하여도를듯하고 어린아이만 이라도돌려 달라해도 친연히안홍으로드되어 소송을 이르킨것이라한다

染病死亡者總數 一月以來一萬八千餘名

昨年보다四百餘名增加

가을이 깁허감에따라 각종전염병이 류행하기시작하여 아직도 종식되지아니하야경성시내를위시하야 각지에서 방역에노력중이라하는데 최근경무국 위생과(衛生課)의조사에의하면전조선전염명발생상태는다음과갓다한다

	今年	昨年
(九月中)		
總患者	一三一九	一三一九
死者	二三七	二九七
(一月以降)		
總患者	一七、四八二	一三、三九四
死者	三、八五九	二、四四二

위의통계와가치 금년 구월중에 잇서서는 작년과비하야 환자발생수는차가업스나사망자에 잇서서는조금감소하엿고금년일월이강두게에잇서서는발생환자와 사망자가 다가치 격증하엿다그리고 중요한전염병은 적리(赤痢)장질부사 두창(痘瘡)성홍열(猩紅熱)뇌막염(腦膜炎)『지후테리아』등이 만코 그중에도 적리는 구월중발생환자는 삼백칠십칠명에 사망자가 구십칠명이고 장질부사는 발생환자가칠백십삼명에 사망자가 일백십사명이라한다 가을이됨에따라 이와가치 위장병이 만연됨으로일반은 특히잘예에 복부를잘덥고자 고 음식물선택에 다른시절보다 더욱주의하얄필요가잇다한다

忠南警察部員 扶餘서三名檢擧

【大田】 구월초순경부터충남경찰부고등과(高等課)형사대가돌연맹활동을 개시하야부여(扶餘)를중심으로 강경(江景)서천(舒川)등지에서리원인(李原人)로명우(盧明愚)등삼십여명을검거하야 대전(大田) 강경부여등각경찰서 류치장과 경찰부류치장에 류치식혀두고 엄중취조한다함은 고보한바이어니와 취조는지십오일에 고등과동원(桐畑)경부가김(金)세상(細上)량형사를대동하고부여동지에출장하야××주의자류기섭(柳基燮)외삼인을검거하야부여서에류치식혀누고 계속하야 활동중이라는바 문제가 압흐로매우 확대될듯하다고하며 이미검속된사람중 강경서에 류치되야잇는 조모(曹某)는여러가지 괴로움을견듸지 못하야 병석에서 신음중이라고한다

羅南殺人强盜 一審보다重役言渡

만주(滿洲)갈 려비를 작만하랴고금년이월 이십팔일밤에 함북라남읍본정(羅南邑本町)에서잡화상하는 과부 일본인녀자절전(折田)도미의집에침입하야 돈을 빼앗스랴다가 동인녀를도 빼앗지못하고 장도리로 로파를 죽여버린목공 (木工) 입강겸길(入江兼吉)과윤학봉(尹學奉)은청진(淸津) 지방법원에서 입강(入江)은무긔징역(無期懲役)윤(尹)은 칠년징역의 판결을받고 경성복심법원으로 불복공소 하얏든바 입강은결국 공소를취하하야 복역하기로되고 윤학봉은 십구일에 말광(末廣)재판장으로부터 일심보다 삼년이더무겁게십년징역의 판결을바닷다

市街地計劃令 明春엔實施될터

법령내용과실시범위는광범 審議室에이미廻附

일본에서 실시하고잇는 도시계획법(都市計劃法)의 례를 본바다 조선에도 시가지계획령(市街地計劃令)을제정하야 실시하기위하야 총독부 토목과(土木課)에서긔안중이라함은 긔보한바와갓거니와 이미 초안이작성되여 심의실(審議室)에 회부되엿는데 대개이법령에는 도시계획법보다 더넓위가크고 편리하게안을 작성하엿다는데 이에대하야 총독부진엽토목과장(榛葉土木課長)은다음과가치 말하엿다

『그안은 지금심의중에잇슴으로내용은발표할수업스나대개 도시계획법과도 시건축물법(都市建築物法)을합한듯한내용이 극히광범하고 편리하게되엿슴니다 그리고 적용되는 도시라도될수잇는대로넓게원만한도시라도 실시 할수잇는 안을작성하엿는데당국의생각은 금년내로시행할 예정이나 여러가지사정이잇서엇지될는지요 느저도 명년봄부터는실시될것은사실이올시다』

孟浪한下人

●●●●●주인의돈가지고도망

시내락원동(樂園洞)일백오십번지 박순명(朴順明)의 우동제조소사용인 박영휘(朴永輝)는 십팔일에 주인의돈삼십원을 훔처가지고 어데로인지 종적을감초아버렷다한다

本夫毒殺未遂少婦에 覆審서四年役을言渡

情夫에게미처남편밥그릇에 양잿물을석거너허

겨우열여덜살밧게안되엿든녀자가자긔 남편을독약을 먹여죽여려하얏다는살인미수 (殺人未遂罪)로십구일 경성복심 법원에서말광 (末廣) 재판장으로부터징역사년의 판결을 바든사건이잇섯다 그범죄의 주인공인녀자는충북청주군 남일면장암리(淸州郡南一面壯岩里) 정덕삼(鄭德三)의맛며느리오정성안(鄭聖安)(一六)의 안해인 김옥현(金玉顯)(一八)으로 그녀자는소화삼년봄 그의나이열세살 째에맛며느리로 약혼하야 가치살아오든중소화 오년가을 열다섯살에에가든동리에 사는안형인(安炯寅)이라는남자와몰래정을통하야관계를계속하여왓다 그러다가 작년십이월십구일에는이미약혼한남자정성안과정식으로결혼식을하고사실상부부가되엇스나 그는연히정부안형인과비밀관계를 계속함으로 이가맥을아는 시부모와 남편은류달리주지람을하야왓다 그런데 일방으로정부안형인은 각금 그에게용돈을 주어서 환심을사게함으로 그는 본부를 점점더실혀하게되어 마츰내는 죽여버릴 목적으로 지난류월시팔일 저녁에 남편밥그릇에 양재물한수까락을 너어두엇섯다 그러나 그밥냄새가이상하엿기때문에 남편이 먹지안하야송으로죽일라든 목적은달하지못하고 드되어 공주(公州)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사년의 판결을밧고 그공소하엿든것이다

流行歌의밤

◇동업매일신보사주최로 이십이일밤 칠시반부터시내장곡천정 공회당에서류행가의밤을열기로되엿다 출연할가수들은 아래와가티 소리판가수로일흠이잇는 남녀가수들로 흥미잇는모임이 될모양이다

金仙草 林憲翼 蔡奎燁 金福順 安一波

◇애차저가오

네살가량되어보이는게집아이한명은 십칠일오후여섯시 경에종로에서 길을잃코 울고잇는것을 종로경찰서원이 그경찰서로더려가 방금보호중이라한다

西署員又復 江陵서活動

金尙烈外六名을檢擧 京城으로押來할모양

【江陵支局特電】 경성서대문경찰서고등계 리(李)형사 외두명의 서원이 십팔일오후십시에 다시 강릉에출장하야 강릉서원의 응원을어더가지고 십구일오전세시경 강릉읍내 모신문지국 김상렬(金尙烈)외륙명을 검거하야 밤새도록 취조하엿다 사건의내용은 전혀감추고 잇으나 탐문한데 십삼일당지에서 남영긔(南英基)권오훈(權五勳)등두명을 서대문서로 붓들어간사건과 관련이잇는것갓다 그러고이외에도 체포자 사오명잇다함으로 압흐로 사건이여하히될런지 주목된다 그러고 검거한인물은 대략 취조후경성으로 호송할모양이다

興味잇는對照 朝鮮과中國陸上記錄

朝鮮은中長距離·投擲優勢 短距離만은中國이優勢

全中國運動大會는 雙十節을期하야 지난十日부터 十日間을두고 南京中央體育場에서擧行되엿는데 參加者는各省代表男女二千名에達하엿스며 觀衆은第一日만으로도三十萬名이나되는大盛況을 이루엇섯다 同大會에서作成된中國陸上新記錄과突破치못한從來의記錄을列擧하야 우리朝鮮의記錄과對照하여보면 短距離와跳躍에는中國이斷然優勢하고 長中距離와投擲에는朝鮮이一日의 長이잇다中國과朝鮮이陸上競技對抗戰을한다면어느편이勝利할는지? 이에對照表에나타난兩편의記錄을보아推測할수잇다◇그리고中國五千米記錄은 일즉이上海滬江大學에留學하든朱耀奎氏가保持者이다

◇朝鮮과中國陸上記錄對照◇

【種目】	【朝鮮】	【中國】
百米	11秒(金長律)	10秒7(劉長春)
二百米	23秒2(金鍾元)	22秒4(劉長春)
四百米	53秒(金鍾元)	52秒4(劉長春)
八百米	2分2秒8(邊龍煥)	2分6秒8(王銘紳)
千五百米	4分17秒4(柳海鵬)	4分21秒2(鄒森)
五千米	15分53秒(邊龍煥)	17分30秒(朱耀奎)
一萬米	33分1秒4(金恩培)	35分27秒8(劉古學)
하이허들	15秒9(金煥民)	16秒2(林紹周)
走高跳	1米75(劉約翰)	1米81(顧或)
走幅跳	6米36(韓喆鎬)	6米91(郝春德)
三段跳	13米99(李晳學)	13米94(司徒光)
投砲丸	11米50(劉約翰)	11米24(劉仁秀)
投圓盤	42米29(劉約翰)	36米26(周連增)
投槍	58米80(劉約翰)	47米26(李作雲)

籠球協會主催 實業籠球戰

二十一日開催

旣報한바 鍾路靑年會後庭에서開催될朝鮮籠球協會 主催第二回全朝鮮實業團 籠球選手權大會는 來二十一日로臨迫하것다同大會는學生을 包含치아니한實業團의對戰임으로 近來에보기드믄 大會니만치興味를이끌고잇다

體育大會 野球豫選

樂浪8…4府廳

【平壤】 關西體育會主催와本社平壤支局後援의 第三回體育大會野球部豫選戰은 十八日午後四時부터 光成高普球場에서開幕 되엿 는데 第一回戰樂浪對府廳試合은鄭元善(球) 林允祥 金有鐸(壘)三氏審判으로開始한바結局8對4로樂浪勝하엿다

스포-츠人事

▲李用毅氏(高麗陸上競技會常務理事) 東一銀行本店에勤務中이든바 今番安城支店으로榮轉하야十七日에赴任하엿다

▲南昇龍君(마라손選手)은明治神宮競技에出戰코저十九日夜東京에

콜럼비아레코-드 Columb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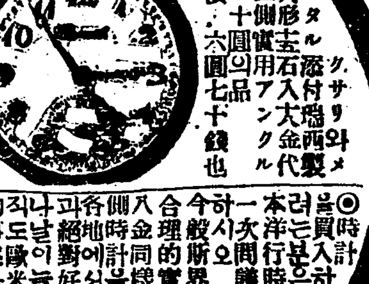
朝鮮레코-드拾壹月新譜

流行歌 落花 / 淚의가을밤 一枚 BA 蔡奎燁 王壽福
同 싸스·맥이 / 江南을가자 一枚 BA 林憲翼 金仙草
民謠 내사랑아 / 山念佛 一枚 金鮮英
流行歌 찻노라그대여 / 停車場 一枚 BA 林憲翼 金仙草
同 望鄕曲 / 落葉 一枚 BA 王壽福 蔡奎燁
兒童悲劇 順童이의孝誠(上、下) 一枚 沈影 金雲英 金鮮英 金仙草
短歌 江山風月
爽將傳 鄭裨將이愛娘과離別 一枚 金弘圭
伽耶琴 바요린 二重奏 노래가락 / 도라지타령 一枚 金甲子

發賣日 十月二十日

有望한滿洲自動車界에雄飛하려는青年은오라! 學生募集 目下滿洲에는運轉手가大不足 本校卒業者는卽時就職紹介 日滿自動車學校 滿洲奉天市工業區四馬路 (學則要二錢)

入院室完備 皮膚科·花柳病科 醫學博士 吳元錫 産婆 金奉允 京城安國洞네거리 (電車停留場前) 電話光二一三一


歐米洋行時計部 現行市價三分의一投賣 十五年保險付 先金注文 (送料負擔) タル型クサリ와メダル添附 瑞西製大形十五石入大金代用金側實用アンクル 市價二十圓의品 特價六圓七十錢也 瑞西製十六形十五石純クローム側實用アンクル 市價十圓의品 特價四圓七十錢也 ⊙時計를買入하려는분은必히本洋行時計部로一次問議後로決定하시오 今般斯界에大發明인合理的實用品으로十八金同樣不變色代用金時計를發賣以來全鮮各地에서破天荒의注文과絶對好評의感謝狀이 나날이늘어갑니다 아직도歐米洋行의奉仕的事業을모르시난분에게以上이特價品을紹介하오니 他店에比하여보시고 安價이오면注文書即送을顧함 時間正確 絶對保證 (商報) 信用本位 (代金引換은十錢加) (進呈) 新義州郵便局私書函二四(雲井町) 振替京城二九五 歐米洋行時計部

淋病專門 診察·午前九時로午後八時外지 尿·血液檢查施行(電本二三五三) 京城郵便局北側(レート塔後) チエ京城醫院

淋疾 患者에告함 大阪チエ는廿年間淋疾에決코他의模倣과追從을不許하는바處에라 오래苦生하는原因은藥品과治療法이잇는바 病이오며一次來院하서서說明을드르시고急히根治케하시옵 (地方文獻進呈) チエ京城支店

巡查看守(講義錄) 巡查看守志願者는本會講義錄卒業에하야 合格保證○一個月의速成科及三個月의普通科로責任付合格養成會則即送 京城永樂町三ノ三 本三○三○ 朝鮮警務學會

恩給 富國興業社

優美館 電光三九五 本日부터FOX名畫週間! FOX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빗나는西部 全七卷 監督 라웃드하바-드氏 主演 죠지오부라이엔氏 助演 쟈넷트칸도라氏 FOX社特作全發聲映畫 怪盜往來 全七卷 原作 루이스요셉반스氏 監督 하밀톤맥크파-덴氏 主演 도마스미한氏 助演 쟈호드그린옷도氏 FOX社特作全發聲映畫! 시스코깃도 全七卷 監督 아빙가밍그스氏 主演 와나바크스다-氏 에드문드로-氏 끈되다뜨네그로氏 MGM社가全世界에자랑하는 類猿人타-산 太平洋爆擊隊도래 이다음不遠續次上映! 乞期待!

中央館 『奉祝祭禮特別興行十四日公開』 新興キネマ超特作現代劇 入江プロダクション蕐作 原作 泉鏡花氏 脚色 東坊城恭長氏 撮影 三木茂氏 水藤指導 松旭齊天勝 監督 溝口健二氏 主演 入江たか子 岡田時彦 哀戀史 瀧の白糸 全拾五卷 本邦映畫史上に燦然と輝く一大金字塔『瀧の白糸』は今や全國到る處大評判の渦を捲き起し連日連夜滿員に次ぐ超滿員の餘地もない本年度の映畫中名篇傑作は少なからずこゝへごも『瀧の白糸』に見るが如き絶讚を博した映畫はなかつた 富籤政談 原作 野村胡堂先生 監督 山本松男氏 錢形平次捕物控 嵐寬壽郎プロ超特級作 文藝春秋オール讀物號連載 嵐寬壽郎主演 淡路千夜子 歌川八重子 嵐德三郎 共演

授業料滯納者는 授業中에歸家시켜
『無產兒童授業料免除制』도撤廢
定平郡의새方針樹立

【定平】 호주할만도못자업는 세민들이면서도 사랑하는 자제만은 공부를식히겟다는 붉라는 열정으로 학교에는 보내여노코 얼마안되는 수업료조차 물길이 업서 쎄로는가산전부를차압(差押)당하는 비참한현장을낫타내여 일반의관심거리로 되여잇는 이때에함남정평군(咸南定平郡)에서는 커다란세민학부형과 생도들을 놀래일두가지 새로운방침을 세웟다 그하나는수업료를 밧기위하야 수업시간중에 아동을 집으로 돌려보내는것이고 그둘재는 극빈아동의수업료 면제(免除)제도를 업새기로 한것이다 수업료를 밧칠의무자가학부형이오 밧는곳이 군(郡)당국임에불구하고 현재는 선생이자긔의가르키는 생도를 독촉하야 밧기로되여잇서 선생과 생도간에는 자연대차(貸借)관계를 짓게된다는 비난조차잇는데 수업시간중에 수업료체납한 생도는집으로 돌여보내기로 되엿다 함은놀랄일이다 이제 그내용을보면 수업료체납자가 잇슬째엔 제일회로군수와 교장의 련명으로 독촉하고 다음번에는 교장이 그부형을호출하고 이에 슬두처안올째는 수업시간에생도를 보내여부형을 다려오게한다는것이다

×

극빈아동의 수업료면제는 종래 그활용범위가 극히좁아 면제밧든생도는(한학교에서 몃명식밧게는 안되엿지만)규정(規定)에 잇는것이오 긔위 실시해오든것을 이제철폐함은 현명한방법이 안일것이라한다

『非難해도 不得已한일이오』 定平郡守談

『선생이생도들을 독촉하야수업료를 밧게됨은 채무(債務)관계를 맺는것으로 비교육적임은알니다만 지금제도로는 엇절수업는일이오 수업료는 상세수입의하나인데 종래 중수에동한하엿든관계로 오륙할밧게 중수되지안아 학교경리상 큰지장이 잇섯소 그러하야 이러한방침을세우게된것이오 하학후에 보내여 익조에 부형과갓치오게함도 빼든조흔것입니다 낫동안은 부형이 집에업슬것도 짐작할수잇소 다소의 비난이잇드래도 학교경리상 부득이한일이외다 무산아동수업료면제는 종래 그규정으로 적용해왓는데 면제밧지못하는세민들의 불평이 만핫습니다 호세등급을보아 면제햇는데 각면의등급이 다른만침 전군기로로보아 아조공평히 할수업지오 면제치 안키로되엿습니다 만은 체납자를 처분함에 고려하기로되여잇스니 결국맛찬가지일것이다』

長城의稻作 四割이減收

【長城】 전남장성지방에는 말할수업는 풍재로인하야 그년도 도작수확이 예상이 삼사할이상의 감수를 보게됨으로 지주측에서는 재감정에착수하엿다는바 일반 소작인측에서는 각지주들의 후의를바라고잇다한다

聖潔教夜學 當局이禁止

【穩城】 온성 성결교회에서는 지방형편에 딸아 가정부인들과 미취학아동들을위하야 또는성경공부를 시키기위하야 지난음오월칠일부터 경찰서의 양해를 어더 부녀야학회를개최하고 백여명학생과 삼사인선생들의 열성으로 자미스럽게경영하여 일반학부형들은물론 온성사회에서찬성이 자자하야오든중 경찰서에서는 외방의 비편이잇다는 구실로 지난음팔월십오일(추석날)로서폐지명령이 날이자 주최측인 교회에서는물론 일반학부형들은 애석함을 마지안는다고 한다

統營郡下近面에 立稻差押四十件

【統營】 금년은 남조선 일대에 사오차나 습래한 폭풍우로인하야 농작물이 전멸되다십히되얏는데 더욱지주에게 기불할도조가 부족되여 소작권이나 떼우지안으랴고 실낫갓흔 헛된희망에서 일년간피와 땀으로지여노코날아가는 새한마리도 못안게하든곡식에 설상가상격으로 사정업는 채권자들은도숙긔(稻熟期)만기다리고 잇다가불과칠팔일사이에 통영군하의 근면만하야 립도차압(立稻差押)이 사십여건에 달한다하며 금년초긔부터 보통차압은 사백여건이라는데 일반농민의 생활은 크게위협되고잇다

溫井院에 夜學設置

【溫井院】 황해도평산온정원에서는 례년과가티 문맹퇴치의 목적으로 농민야학을 오는이십오일부터 당지례배당에서 개최하리라는데 강사는조범주(趙範疇)리긔순(李基淳)량군이라하며과목은한글과산술등이라한다

清津岸壁工事 明春으로遲延

【清津】 청진부두 제오안벽(岸壁)공사는 느저도 십이월하순에는 공사를준공하야 세관에 인계하도록할예정이든바 목재기타관계로 공사가 진행치못함으로 명년이월경에나 사용할수잇스리라한다

慶州古跡의 探勝團員募集 本報陝川分局主催

본월이십팔일 구량일을 리용하야 본보 합천분국주최로 경주고적 탐승단을 모집하기로되엿는바 탐승지는 경주고적지외에 회원유원지,대구동촌등지를 탐승할것으로만히참가하기를바란다한다

鎭南浦 體育講演 大盛況을豫期

【鎭南浦】 진남포체육회 주최와 동아 조선 중앙본보삼지국후원으로 오는이십팔일 오후팔시부터 체육대강연회(體育大講演會)를비석엡웟청년회관(碑石엡웟青年會)에서 개최하게되엿는데 연사로는 일즉히미주에건너가서 체육대학을마치고 방금평양에서 체육계를 위하야각방면으로 활동중에잇는 최능진(崔能鎭)씨이며 연제는『우리의 體育運動과大衆의保健』인데 이런체육강연이 처음인만치 미리부터 대성황을 예기한다고한다

羅州에서도 青年多數檢擧 全南警察部指揮로

【羅州】 전남라주(全南羅州)에서전남도경찰부(警察部)중도경부(中島警部)가라주서원들을총동원식혀지난십팔일새벽부터본보나주지국장오쾌일(吳快一)손동출(孫東出)김보섭(金甫燮)라종남(羅鍾南)리덕인(李德仁)등외이삼십명년을 검거하는 동시에 가택수색을 하얏다는대 사건내용을 절대비밀에 부침으로아죽알수업스나 도경찰부의 활동한것으로 보아 자못중대시된다고한다

白川溫泉新館 天一閣上樑式

【白川】 방금주식회사로창립중인백천온천조합(白川溫泉組合)은 예상이상에조흔성적으로 착착진행되는터이데 지난달부터신관공사를 착수하는동시 신관의 옥호까지 현상으로모집한다함은 본보로동하야 알리엿거니와 응모인원이 일천오백에달하는중에서 천일각(天一閣)이라는것이 당선되야 지난십륙일에 동각의 상량식겸 명명식을관민유지 백여명참석하에 창립위원장정우진(丁佑鎭)씨외식사를 비롯하야 태비촉사로성대히 거행하엿다하며 동각의 당선자는 평남룡강군로선오(平南龍岡郡魯善五)이라한다

새로販路어든 楸實 每石二十五圓

【文川】 문천군운림면동봉리(文川郡雲林面東鳳里)에서는종래그가치를 아지못하야 내버렷든 추목실(楸木實)를 산림보호원의 주선으로 금년부터 비로소판로(販路)를 알게되야 경성 주앙불산주식회사에 딸게하엿다는데 한섬에대금은 이십오원이라하며 벌서판 것이륙십석에달하는바 지방주민의 생활에큰도움이 된다고한다

青松郡眞寶面書記 公金橫領遠飛 一個月後에야發見코 犯人逮捕에血眼搜索

【大邱】 경북청송군진보면광덕동(青松郡眞寶面廣德洞)삼백칠번지권진보면서긔권영긔(權永基)(가명(假名))는재직중작년사월부터 농회비외가라 세금을합하야 공금 오백오십삼원오십사전을횡령한것이 일개월후인 구월에야발각되어소관청송서(青松署)에서는권영긔를 체포코저엄탐중이나 권은벌서 어데로차최를감추엇다는데만주방면으로도망하든 듯하다고한다

讀者理髮割引 (溫井里)

황해도평산온정원(黃海道平山溫井院)중앙리발관에서는본보독자에한하야 리발료 삼십전을이십전으로 할인키로 되얏는데 독자는만히리용하기를바란다고한다

今日 關西體育大會

於箕林里運動場

◇主催 關西體育會

◇後援 本報平壤支局

史話 雲峴宮의봄 (三)

琴童 作 青山 畵

十三의十

국궁ㅡ오(鞠躬)

바ㅡ이어ㅡ오(拜)

흥ㅡ오(興)

평시이ㅡ나(平身)

작년 구월에 경희궁(慶熙宮)으로 이어하섯든 상감은 모든 공인들을 인솔하시고 금사월에야 다시 창덕궁으로 환어하섯다 환어하신 뒤의 첫번 숙배(肅拜)엿다

월대(月臺)우에는 인의가 노피 올라서잇다

그아래는 정일품부터 종구품까지의 열여듧개의표석(表石)이 서잇고 열여듧계단의 조신들은 각기 그 품반품서로 서 잇다

『국궁ㅡ오』

기ㅡ다라케 뽑는 인의의호령에 백관들은 모도 일제히 허리를 굽혓다

『바ㅡ이ㅡ』

두번째의 호령에 백관들은 북향하여 절하엿다

『흥ㅡ오』

세번째의 호령에 몸을 절반만치 이르켯다

『평시ㅡ나』

몸을 고추이르켯다

다시 국궁, 바이, 흥, 평신ㅡ이리하여사배는 끗이 낫다

승후관(承候官)의 한사람으로서 조성하도 이 숙배에 참예하엿다

숙배를 바드신 뒤에 상감은 시신들에게 부축을 바드시고 편전(便殿)으로 들어가섯다

성하는 승후청으로 나왓다 그리고 거기서 관복을 버서가지고 잠시터·머뭇거리다가 금호문(金虎門)으로하여 대궐박그로 나왓다 이날은 비번이므로 숙배만 끗내인 뒤에는 나와 버려도 괜찬흔 날이엇다

궐박그로 나오기는 하엿지만 갑자기 갈데가 업섯다 유난히도 마음이 어즈러워서 집으로도 돌아가기가 실혓다 성하는 가마만 먼저돌려보내고 잠시 돈화문 밧그로 돌아와서 머뭇 거리다가 발을 서쪽으로 돌렷다 며칠만에 흥선ㅅ댁 이라도 한번 차저 보고저 함이엇다。

며칠전 흥선을 모시고 경희궁에 대비를 가서 뵈온뒤 성하는 그뒤 아직 흥선도찻지못하엿다 그러나 그날의인상은 성하에게 잇서서는 꽤 컷다

자긔의 눈이 결코 잘못보지 안엇슴을 성하는 그날확연히 알엇다 주책업는 인물 상가수집 개ㅡ 이런 칭호를 들으면서도 탓하지 안는 흥선을 성하는 아직것 의심의 눈으로 보고 흥선의 그런인격의 배후에는 무슨 커다란 책략이 잇지나 안흔가 하고 늘 유심히 보앗지만 너무도 감쪽가치소김으로 성하로서도 마즈막에는 반신반의치 안흘수가 업섯다 그러나 그날 확실히 성하는 흥선의 진면목과 진인격을 보앗다 표면 어리석은 듯이 꾸미는 그 가면을 벗는날ㅡ그속에서나온 흥선은 결코 주책업는 술망나니가 아니엇다 렴치모르는 인물이 아니엇다 그 응며、태도 언어 행동 어느 점에 잇서서도 대궐안에서 생장한 대군 왕자에게 지지 안는 단아한 귀인이엇다。

이런 일면을 가진 그가、항간(巷間)에 몰아다니며 하는 그 행동은 너무도 어즈러운 행동이엇다。만약 그것이、김씨일문을 소기는 가면이라면、흥선이야 말로、고금에 다시 업는 훌륭한 배우엇다。

『이놈。네가 그모동이에서필주ㅡ하니 나오니 이름이 필주로구나』

희옷을 입은 인물(당시에 잇서서는 량반은 옥색 그타 물드린 옷이며 평민는 흰옷이엇다)과 상투를 맛잡고 중이환시의 대로상에서 희롱을 하는 흥선ㅡ이 흥선과 그날의 흥선과는 너무도 차이가 잇섯다 왼더러 그런 주책업는 일을 한지 단 두세시간 뒤에 흥선은 그러홋변한것이엇다

그 괴괴한 인물에 대한 위포와 경모의 정이 젊은 성하의 마음에 무럭무럭 이러낫다 이 사람에게 몸을의탁하면 장래 반드시 한번 그 공을 볼것을 성하는 분명히 직각하엿다

◎又々大奮發の十一月號!! 婦人コート五百枚贈呈の大懸賞つき◎

婦人俱樂部

三大附錄つき

別册大附錄 家庭向

支那料理三百種

御家庭で手輕に出來るものばかり全部實驗の上發表!

どこでも手に入るお安い材料て、珍らしくて美味しい〳〵お料理が簡單に作れるのでお家庭の方方も大喜び、お客樣も舌鼓み打つこと請合です。世界て一番美味しい、それて榮養に富む料理として大流行の支那料理の秘傳書、一家に一册はゼヒともお備へ下さい!

別册附錄

防寒實用毛絲編物

寒さ知らずに冬が暮せる フクくと溫い防寒實用もの六十二種發表

赤ちやんものから、子供もの、婦人もの、男子もの、老人ものまで一目見れば誰にもスグ編める親切な圖解と說明つき極彩色大書報で發表の豪華版大附錄

漫画絵本 凸凹黑兵衞

お子樣が飛び上つて喜ぶお土産の附錄、右二大附錄の外之も洩れなく贈呈

▲『大連情痴事件』座談會

世を騷がした兒玉博士と勝美夫人に絡はる一大怪事件。事件發端から高野山に捕はるゝ迄の眞相と正しい批判の發表

▲夫婦生活の危機と切抜け座談會

必ず一度は來る怖ろしい家庭破綻の原因と之を未然に防ぎ夫婦愛をいよ〳〵濃厚に導く秘法を發表した重要記事

▲手縫で出來る冬の子供服とオーバー作り方

輕快で衛生的な新型子供服三種、オーバー二種の作り方を圖解と寫眞入りで紹介。御家庭で簡單に出來るので大評判

▲良人の癇癪の上手なとりなし方

▲新型變り衿婦人コート三種作り方

▲安くて榮養豊富 秋刀魚と鰯の簡單料理

▲鷄卵利用のお菓子五種の拵へ方

▲菜・大根の美味しい朝鮮漬七種

▲涙で母を呼ぶ河上博士令孃 結婚五日間の新妻日記

▲美容師を志す婦人の爲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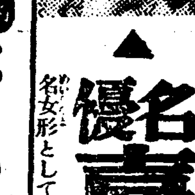
寢小便の新療法

安全な避姙法の實例

避姙法の實際指導家と醫界の最高權威者が、安全確實な避姙法を誰にも簡單に實行出來るやう實例を以て發表、誰方にも大切な實際記事、ゼヒ御一讀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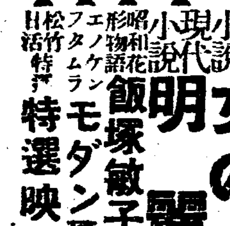
慢性『痔』の家庭根治法

痔を治すなら今です。長年苦しめられた痔を自宅で簡單に治した體驗談五篇公開、痔でお苦しみの方はスグ御覽下さい。之こそ人助け記事として大評判です



▲名優喜多村緑郎氏の美容縱横談

名女形として輝く喜多村緑郎氏が、お化粧の手ほどきから、女になる苦心、女らしく見せる極秘の急所を公開。



▲純情小說 月よりの使者 久米正雄

純情が罪か?美貌が罪か?看護婦野々口道子の戀と涙の人生哀史

▲戀愛小說 女の友情 吉屋信子

▲現代小說 明麗花 菊池寬

▲昭和花形物語 飯塚敏子純情物語 花村哲夫

▲エノケンフタムラモダン彌次喜多道中記

▲松竹日活特選映畫物語二篇

▲美しく見える額の美容法

▲知らねば笑はれる婦人服常識

▲毛髮を恰好よく結上げる新工夫

▲シミ・ソバカスの人の化粧法

▲新家庭の模範的家計實例

六十錢 送料十二錢 發行所 東京・本鄕 大日本雄辯會講談社

林巨正傳 (203)

洪碧初 作
安碩柱 畵

배곤석이 二의十一

동관놈들은 겨노코보니 남녀가 다 갑주먹은 괴상흉하고 고개를 들지못하는데 기집은 그래도 빤빤스러워보이나 서방님이란자는 쥐구멍을 못차커 걱정인모양이데 내가 퍼떠버리고 안커서서방님을보고

「긴말할것업시 내가 청하는 일은 무어이든지 다 들어주겟소」

「왜 대답을 안하우」

서방님의고개가 숫덕숫덕하는것을 보고

「그러케하단말이요」

하고 다두켜 물으니 서방님의고개가 또다시 숫덕숫덕하데

「그러면 첫재 기집을 속냥해주구 둘재 기집이 일평생 먹구살만큼 천냥을 논하주시우」

「그러케 하겟소 못하겟소」

「고개만 ㅅ떡이지말구 말루 대답하우」

서방님입에서 겨우

「그러케하겟서」

「그려운」

나는 곳 뭉이것을 설레주라고하다가 수표가 미심스러운생각이나서

「잠간만 떠참우기시우」

하고 새주엇든 바른손써지다시 동여노핫네 서방님에게바든수표를 글아는사람에게가서 보이고오랴고 행랑에서나오는데 아무리 동여노킨단단히 하얏지만 사람의일은 혹시몰라서 부억뒤에잇든 나무토막을 들어다가 방문에 버터어노코

「이만하면 방안에서 몸뚱이루 떠다밀어서 열지못할께다」

생각하고 나왓네 사랑선생은 설쇠러 집에가서 아즉 오지안헛고 누가 조흘까 속으로 이사람 커사람 꼽든다가 진서잘보는 동네일좌를 차저갓네 일좌가 자는것을 급한일이잇다고 쌔워가지고

「이것 좀보아주」

하고 어둔밤에 홍두개로수표를 펴서 눈아페 드려미니

한마듸말이 떨어진뒤에 나는 곳

「그러면 이자리에서 수표를 써내우」

하고 내몸에지닌 필묵을 내노코 서방님의 바른손하나만 쌔노하주엇네 내게잇든백지한장을 쓰내서 서방님아페 펴노코 사긔그릇에 먹을갈어서 붓에 무치어 서방님을주엇더니 서방님이 붓을 들고 대를보고 또 속을보고 하다가 내얼골을 바라보는 눈치가 사랑벗집에서 가커온것인줄을 아는모양이데

「자 수표를 쓰우」

「사랑에 들어갓다왓지」

「잔소리말구 어서 쓸것이나 쓰우」

서방님이 한동안 망서리다가 쓰기시작하야 두서너줄죽 나려쓰고 붓을 노흘랴고하기에 내가

「다 썻소 다 썻거든 수장을 질은든지 수결을 두든지하우」

하고 말하야 서방님이 수결까지 두고 붓을 노핫네

「사연을 한번색여읽어보우」

「배돌쇠이처 금순이는 몸갑업시 속량하야주고 논밧이섬두락을 허급함사 년월불 김도사댁」

「이십누락이 적지안켓나」

「이십누락두 좃소」

「인제 고만물러주겐」

「이게 무언가」

일좌가 눈을 부비면서 한동안 드려다보고

「자네 큰일낫네」

하고 호통하데

「무슨 큰일이 낫소」

「자네 무슨짓을 햇나」

「당신더러 말슴이지 내기이란것이 안에서 밤중까지 안나오기에 불른대들어가본즉 그년이 안에 잇는게아니라 사랑에서 서방님에 수청을 듬되다 내가 서방님보구 몃마듸 조치안케말슴햇드니 서방님이 무안헐에 기집을 속냥해준다구 수표를 써줍듸다 속냥해준다는말이 여긔 쓰여잇지안소」

「속냥? 속냥이 다 무언가 자네가 사랑에 들어와서 도독질햇다구 귀양보낸다구 쓰이어잇네」

「무어요 도독질햇다구 긔막힌소리 다듯겟소 내가 까막눈이라구 속엿구려」

「여보게 이쌔지셔 진작 씨커버리겐」

「서방님께 물으갓다 드릴테오」

「내가 보아주웟다구 말말겐」

「뎀려마우」

「공연한일루 단장을 세워서 미안하우」

나는일좌에게 인사하고 한다름 행랑으로 돌아왓네

祝本報革新平壤支局發展

平壤府南門通二丁目 水道器具 鐵物金物 諸工業用 機械資料 各種塗料 合資會社 義兄弟商會 電話一六三七番 振替京城一七八七八

平壤府將別里 兄弟麵屋 電話八四八番

平壤府南門通二丁目(舊南門通) 韓一紙物商會 電話一七九四番

平壤法摘角 綢緞布木 廣林商會 電話一六〇八番

平壤府敍貫里 李春燮

平壤府大寮里 姜海龍

平壤府鹽店里一一二 辯護士 盧鎭高 電話一四九五番

平壤府水玉里 中央醫院 電話一七二九番

平壤府鷄里 基督書院 丁東奎 電話一五四九番

平壤府鷄里一一八 書籍文具 印刷業 文洋堂 電話一一七七番 振替京城二〇九〇四番

平壤府履鄉里 西京醫院 金淵玉

平壤府箕林里 平和醫院 康秉銓

平壤 孫致民

朝鮮料理 又春館 電話一〇五九番

支那料理 一品香 電話一七五三番

平壤府船橋里 張惠醫院 院長 張相武 電話六一九番

平壤府壽町八六 箕城タクシ 電話一一二四番 五九六番

平壤府鎭岩里 辯護士 崔鼎默

平壤綢緞布木商組合

平壤府新陽里一六九 三盛製綿工場 電話一三六五番 振替京城一二七八四番 電略(サン)又ハ(삼)

平壤府鹽店里五一 朝鮮料理 東一館 電話一五五八番

平壤鐘路 平安製革所 主 柳鵬烈 電話二三二二番 振替京城一九四三番 工場部 平壤府東大院里

平壤 關西體育會

平壤府館後里八九 濟衆醫院 院長 金秉瑞 電話九二一番

平壤府上水口里 寫眞製版 特事寫眞 人像寫眞 朝鮮寫眞工藝社

平壤府箕林里(西平壤驛前) 天一고무工業社 電話一三四七番 振替京城一六九七八番

西平壤驛前 鮮滿고무工業社 電話八八一番

平壤府新倉里 一信活版所 電話九六三番

平壤府館後里 眼耳鼻咽喉科 野雲堂醫院 院長 李俶斌 電話一三九六番

平壤府南山町 光成普通學校

平壤府水玉里一番地 平壤協同殖産組合 電話一三二六番

平壤府鹽店里八五 中央齒科醫院 電話九一七番

平壤府鷄里四〇 海外學友協會

平壤府 鼎義幼稚園

平壤辯護士會

平壤府鷄里二一七 穀物委託販賣 東日商會 電話一八二三番

平壤府西門外 平安硝子工場 電話一二八八番

平壤府將別里 精米 金龍錫商店 電話一三五四番

平壤府巡營里 永昌旅館 電話一一七九番

大同郡大寶面 私立就明學校

平壤府履鄉里 大同皮革店 電話一八一九番 振替京城一二一〇三番

平壤府水玉里六八 東陽旅館 主 楊濟英 電話一二六七番

平壤輪業組合

平壤鐘路 金銀 白金 地金商 合資會社 寅明分析所 電話一八三九番 振替京城一〇四七一番

平壤府新倉里 朝鮮料理 元祖長春館 電話八八五 一九一〇番

平壤 光成高等普通學校

平壤府慶上里 朝鮮料理 翫月亭 電話一三四〇番

平壤府南門通二丁目 自動車用品 金庫 穀物委託販賣 中央物産株式會社 電話九六一番 振替京城五六六五番

平壤고무工業同業會
久田고무工業所
國際고무工業所
內德고무工業所
金剛고무工業社
大同고무工業所
第一고무工業社
東洋고무工業社
世昌고무工業社
正昌고무工業所
鮮滿고무工業社
平安고무工業社
平元고무工業社

崇實專門學校

崇實學校

平壤府南門通二丁目 平安百貨店 代表電話九九七番 振替京城二一〇〇二番

平壤洋襪工業同業組合
大同織造商會 朝鮮洋襪工場
平安精米所洋襪部 大星社織造所
三共洋襪工場 平安洋襪工場
東亞洋襪工場 海東社洋襪工場

平壤府敍貫里 財團法人 白善行紀念館 電話一七二〇番

平壤 崇仁商業學校

平壤府新倉里 朝鮮料理 元祖 大成館 電話一一九七番